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5호 (2026.05.22)

## ■ 이 슈

(산업)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위기와  
정책 대응 필요성

##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 국내 정책동향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5호 (2026.05.22)

## Cotents

### I. 이 슈

(산업)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위기와 정책 대응 필요성 ..... 1

###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 10

###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문체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 영화 할인권 배포 ..... 11

(경제) 기후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마련 ..... 11

(금융)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및 금리 공개 ..... 12

(산업) 신소재 개발 촉진을 위한 'AI 소재 R&D 플랫폼 구축 전략(안)' 발표 · 12

(산업) 5월 13일부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포·시행 ..... 13

(산업)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13

(산업) 고용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14

(노동) 대상 확대, 노동자 중심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 14

##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 산업 &gt;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위기와 정책 대응 필요성



#동구 #철강산업 #1차 철강 제조 #산업위기

- 국내 철강산업은 △과잉 생산 문제 △보호무역주의 △탈탄소화 △수요 부족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천시는 관내 철강산업이 집중된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충격이 확산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
  - OECD(2025)는 글로벌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이 202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과잉 생산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 △보호무역 △탈탄소화 지연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OECD와 S&P Global(2026)은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인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철강 생산 확대가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철강업체들도 철강 가격 및 수익성 하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sup>1)</sup>
    - 중국에서 생산된 값싼 철강 제품이 중국 내부 수요를 초과 달성하고 해외로 흘러가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및 자국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
    - 철강산업은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다량의 화석에너지를 소비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고철 재활용 △수소환원공정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CCUS) △그린 전력 활용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철강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신기술 투자가 부진한 상황
  - 국내 철강산업은 ①건설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수요 부진 ②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③중국산 저가 철강 공급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생산 감소·수익성 하락 등 경영활동에 곤란을 겪는 상황
    - 인천시 동구 지역의 경우 1970년대에 인천내항과 인접한 동구에 철강 생산 대기업이 들어선 이후 철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sup>2)</sup>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협력 관계 기업이 동구 내에 소재하여 철강산업의 업황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
  - 이에 본 고에서는 인천시 동구 지역의 산업위기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동구 지역 철강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1) 1차 철강 제조의 선공정 단계인 주조(고로 공정)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 유지가 필요하여, 수요의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2) 동구 지역 전체 면적의 약 50.1%가 공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 본사 및 동국제강 인천공장이 해당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

○ 국내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인 건설경기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원가 부담 △환경 규제 강화 △중국궤 철강 과잉 공급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감소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하방압력이 지속될 전망

-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철강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경기의 부진이 지속<sup>3)</sup>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 진입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주요국 정책·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의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이 악화
-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5년 기준 181.9원/kWh로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약 120원/kWh 수준) 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이 필수적이므로 전력 비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원가 부담이 국내 철강산업 수익성 악화에 영향
- 2026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4차 계획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 가격의 상승과 기업의 감축의무 확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철강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
- 중국의 철강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내수 둔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철강의 글로벌 시장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의 대외 가격경쟁력 악화
- 미국의 철강 및 파생상품 대상 관세 부과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주요 국가의 정책·제도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철강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및 연관 산업 공급망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 산업연구원(2025.11)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은 수요·수출·생산 전반에서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 회복이 어려울 전망
-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누적된 수요 위축으로 인해 내수 회복 역시 제한적인 상황으로 2026년 철강 생산은 전년대비 약 2% 감소하며 저점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1] 국내 철강산업 전망

(단위 : 천 톤, 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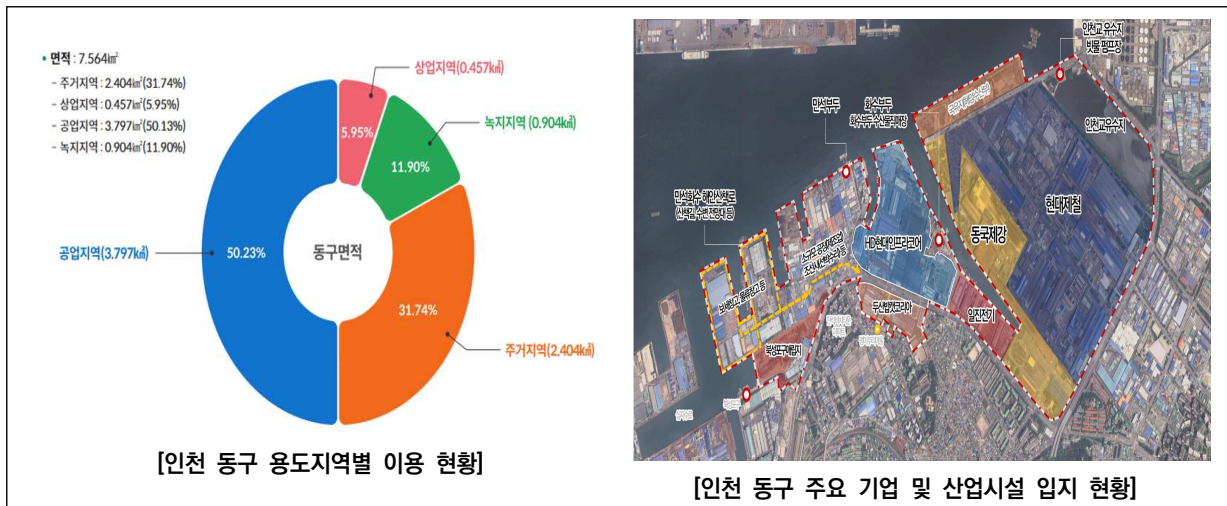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철강 생산	66,486 (-4.9)	31,811 (-5.2)	31,977 (-2.9)	63,788 (-4.1)	30,922 (-2.8)	31,610 (-1.1)	62,532 (-2.0)
철강 내수	47,786 (-8.9)	21,733 (-13.6)	21,652 (-4.3)	43,385 (-9.2)	21,647 (-0.4)	22,085 (2.0)	43,732 (0.8)
철강 수출액	33,282 (-5.4)	15,614 (-6.0)	15,282 (-8.3)	30,896 (-7.2)	14,574 (-6.7)	14,782 (-3.3)	29,356 (-5.0)
철강 수입액	21,118 (-6.4)	9,396 (-13.4)	9,300 (-9.4)	18,696 (-11.5)	9,098 (-3.2)	9,289 (-0.1)	18,387 (-1.7)

\* 자료 : 산업연구원(2025.11) 참고 및 재구성

\* 주 :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표기

3) 한국철강협회(2023)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의 수요산업별 출하 비중은 2022년 기준 건설업이 36.0%로 가장 높고, 자동차(28.0%), 조선(17.0%) 순. 건설기성액은 202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4분기 기준 전분기대비 8.7% 감소하는 등 침체 흐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 역시 지속되고 있어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천시 동구는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산업이 동구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약 51.7%를 차지<sup>4)</sup>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은 편
  - 인천시 동구는 지역 전체 면적의 약 50.1%가 공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지역 전체 부가가치 창출액의 약 61.7%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
    - 인천시 동구 지역의 용도지역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는 전체 면적의 약 50.1%에 해당하는 3,797km<sup>2</sup>가 공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거지역(31.7%) △녹지지역(11.9%) △상업지역(5.9%) 순
  - 2023년 기준 인천시 동구의 철강산업 생산액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위 수준인 4.86조 원으로, 대표적인 철강업 기반 도시인 포항, 광양, 당진 다음으로 철강산업 생산액이 높은 지역
    - 동구는 일제강점기 시기 철강·전기·기계 공장이 다수 조성됨에 따라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950~1970년 시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인천공장이 가동한 이후 철강산업 집적단지로 발전
  - 동구 철강산업은 지역 제조업 생산액의 약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총종사자 수의 약 6.3%, 지역 총수출액의 약 59.4%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 산업 생산, 수출 및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sup>5)</sup>
    - 동구 지역의 철강 사업체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제외하면 대체로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협력업체 중 동구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43개 사(인천시 전체로는 총 75개 사)로, 지역 내 기업이 두 대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
    - 동구의 철강산업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중심으로 다수의 중소·영세 가공업체와 협력사가 밀집해 있는 수직계열화 구조로, 평상시에는 수직적인 산업구조가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으로 작용하나 경기가 어려울 때는 대기업의 생산 감소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 자료 : 인천시 동구청 홈페이지, 인천연구원(2025.10) 등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인천시 동구 지역 현황

4)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의 2023년 기준 1차 철강 제조업(KSIC C241) 생산액을 이용하여 작성.  
 5) 생산, 수출, 고용 정보는 모두 ‘1차 철강 제조업(C241)’을 기준으로 하며, 생산액은 ‘광업제조업조사’의 2023년 자료를, 종사자 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2024년 자료를, 수출액은 한국무역협회의 ‘지자체·품목별 수출입’의 2025년 자료를 이용.

○ 인천시 동구의 철강기업의 절반 이상이 철강산업의 구조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으며,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sup>6)</sup>

- 동구에 소재한 1차 철강 제조 기업 중 77.8%는 지난 3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사업 활동 영위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요인은 내수·수출 부문인 것으로 확인
  - 동구 소재 철강기업 중 최근 12개월 평균가동률이 70% 미만인 기업이 66.6%로 전반적인 생산 여건이 위축되어 있으며, 2026년 철강산업 전망에 대해 약 88.9%가 ‘악화’를 선택하는 등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
  - 경영 위기 요인 중 ‘내수·수출’ 부문의 영향 정도를 ‘매우 심각’으로 응답한 기업이 66.7%로 가장 큰 위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내수 감소가 주요 문제인 것으로 확인
  - 동구 철강기업은 지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저리 대출·정책 보증 등 금융 지원(66.7%) △세금 감면·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66.7%)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 지원(44.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sup>7)</sup>
- 동구 철강기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관내 주요 철강기업은 △공정 가동률 하향 조정 △적자 수출 △경쟁력 열위 공장 폐쇄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 위기에 대응 중이나,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투자를 위축시켜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
  - 한국은행의 ‘2020년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동구 소재 주요 철강기업의 2022년~2025년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1차 철강 제품 생산 감소에 따라 인천 지역 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약 3.3조 원, 취업자 수 약 5,90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2]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

구분	1 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합계
저리대출·저율보증, 만기연장, 무역금융 등 금융	2 (22.2%)	3 (37.5%)	1 (12.5%)	6 (66.7%)
세금 감면·유예,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3 (33.3%)	3 (37.5%)	0 (0.0%)	6 (66.7%)
고용유지 보조금, 인력교육·훈련 등 고용	0 (0.0%)	0 (0.0%)	2 (25.0%)	2 (22.2%)
신기술·탄소중립기술 등 연구개발(R&D)	0 (0.0%)	0 (0.0%)	3 (37.5%)	3 (33.3%)
사업전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설비투자	1 (11.1%)	0 (0.0%)	0 (0.0%)	1 (11.1%)
국내 판로 개척, 수출 마케팅 등 판로 개척	3 (33.3%)	0 (0.0%)	1 (12.5%)	4 (44.4%)
환경 규제 유예, 법규 대응 컨설팅 등	0 (0.0%)	0 (0.0%)	0 (0.0%)	0 (0.0%)
전기·용수비용 한시 인하 등 원가 절감	0 (0.0%)	2 (25.0%)	1 (12.5%)	3 (33.3%)

6)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철강기업과 관련 협력사의 위기 현황 파악을 위하여 △최근 3년 경영 여건 △업황·전망 △경영 위기 체감도 △정책 수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 철강기업 위기 현황 및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 동 문단은 동구 소재 ‘1차 철강 제조업’ 영위 기업 16개 사 중 9개 사의 답변을 기준으로 작성.

7)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 1, 2, 3순위 합산.

- 중앙정부에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및 「K-스틸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기반하여 포항시, 광양시 등을 철강 분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원을 추진
  - 최근 국내 철강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정부는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품목 설비 규모 조정 △저탄소·고부가 가치 전환 △저탄소 공정 전환 △수출·무역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은 공급과잉 여건 및 시장 경쟁력 여부에 따라 철강 품목별 설비 규모 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무역장벽 극복 및 국내 불공정 수입을 위한 지원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 수요 확보를 지원
    -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생산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 및 철강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친환경 경쟁력을 제고
    - 같은 시기 정부는 철강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①중장기 정책 수립 ②규제·통상 대응 특례 ③친환경 전환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제정
  - 또한 상기 철강산업 지원책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연계하여, 철강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금융·세제·고용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단위에서 장기적인 산업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현재 정부는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포항시(25.08)와 전라남도 광양시(25.11)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만기 연장 등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안정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

설비 규모 조정 및 지원	수출 장벽 대응 및 불공정 수입 대응	기술개발, AI 전환 및 수요 창출	그린 경쟁력 확보 지원	안전 및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력 약화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설비조정 계획 지원</li> <li>- 자율 조정이 어려운 경우, 수입재 침투율에 따라 자율 조정 여건 조성 또는 수입 대응 실시</li> </ul> </li> <li>경쟁력 유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감한 선제 투자로 산업 경쟁력 확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EU/인도 등 양자협의</li> <li>수출공급망 강화보장상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피해기업 이차보전사업 신설</li> <li>무역구제 조치 엄정 집행 및 제3국/보세구역 반덤핑 규율 강화</li> <li>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탄소강 R&amp;D 로드맵 수립 및 연구개발비 2,000억 원 지원</li> <li>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 등 제조AX 신속 추진</li> <li>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 실적 확보 지원 및 정부의 우수 철강 활용 프로젝트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철강 기준 설정 및 검증체계 마련</li> <li>'철강산업 특별법' 내 저탄소 전환 지원근거 마련 및 공정 전환 관련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 검토</li> <li>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추진 및 기술/플랜트 해외 수출화</li> <li>철스트랩 산업 육성방안 마련 및 전문기업 지정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연계 지원 검토</li> <li>KS 인증 기준/심사/사후관리 강화</li> <li>철강업 특화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및 안전시설 세액공제 확대</li> <li>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소재 수급/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 등 상생협력 확대</li> </ul>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5.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 등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주요 내용 요약

○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은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지역 기업들이 친환경 공정 전환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정부는 인천시 동구를 철강산업 분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수행할 필요

- 인천시 동구 철강기업은 폐열 활용 자기발전 시스템 및 전기로 에너지 자동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 △초고강도 철근 개발 △철강 소재 공동 R&D 추진 △ 등 저탄소 공정·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등 대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수행 중
- 인천시는 지역 유관기관과 철강기업이 함께하는 TF 및 민관협의체를 발족·운영하여, 지역 철강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을 실시
  - 인천시는 2026년 1월부터 동구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고용부)'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산업부)' 지정을 병행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른 결실로 지난 4월 15일 인천시 동구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sup>8)</sup>
  - 동구는 지역 철강기업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26년 2월에는 관내 철강업계의 침체가 지역 경제 및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원 특례보증'을 확대 실시
- 또한 인천시는 동구 철강산업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한 산업통상부 고시의 ①지역 주된산업 요건<sup>9)</sup> ②정량 요건<sup>10)</sup> ③정성 요건<sup>11)</sup>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상황<sup>12)</sup>이므로, 산업부는 빠른 시일 내에 동구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책을 마련·추진할 필요
  -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은 △산업 다양성지수 6.8로 전국 평균(11.5) 이하 △철강산업 종사자 수 2,353인 △종사자 수 많은 산업부터 비중 합산 49.5% △철강산업 특화도 14.8 등 지역의 주된산업 요건을 모두 만족<sup>12)</sup>
  -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은 지역의 주된 사업으로써 2024년 기준 지역 내 생산액이 전년 대비 -30.5%, 전전년 대비 -40.7% 감소<sup>13)</sup>하여 정량적 요건을 만족
  - 정성적으로는 지역 철강기업이 공장 설비 폐쇄·고용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동구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을 지원할 필요

8)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완료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4월 27일 동구 지역 및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2026년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를 고용부에 제출하였으며, 사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국비 40억 원을 투자해 동구 철강 및 전후방 산업의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

9) 지역 주된 산업 요건은 ①지역 산업구조 다양성지수(DI)가 전국 평균 이하 여부 ②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 및 규모가 △지역 내 산업 종사자 수 비중의 50% 이상 △종사자 수 많은 사업부터 누적 종사자 수 비중이 상위 50% 이내 △지역의 신청 산업 분야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신청 산업 분야의 지역 산업 특화도(입지계수, LQ) 2.0 이상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필요.

10) 정량적 요건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장 수 △생산액 중 하나 이상이 3개월 연속 전년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충족해야 할 필요.

11) 정성적 요건은 지역의 주된 산업 중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타지·해외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및 고용인원 구조조정 계획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

1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요건 검토는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KOSIS, 온라인 간행물)'를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1차 철강 제조업(C241)'에 해당하는 소분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통계 특성상 사업체 2개 이하인 경우 종사자 수 확인이 어려워 산출 값에 일부 차이가 존재.

13)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통계 기준(2026.04.22. 공표).

제조 >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2026년 4월 자동차 생산은 36.2만 대, 수출은 24.5만 대 수준을 기록하며, 공급망 이슈, 신차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해 생산·수출이 모두 전년 동월 및 전월대비 소폭 감소<sup>14)</sup>
  - 4월 국내 자동차 신규 생산은 일부 부품의 공급망 이슈와 주요 자종의 신차 모델 출시를 앞둔 대기 수요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전월대비 6.3% 감소한 36.2만 대를 기록
    - 내수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전월대비 8.0% 감소한 15.2만 대를 기록하였는데,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
    - 4월의 경우 친환경차의 내수판매가 9.1만 대로 전체 내수판매 차량 대수의 약 60%를 차지하며,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전환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국내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 5.6% 감소한 24.5만 대 수준으로,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5.5%, 전월대비 3.2% 감소한 61.7억 달러를 기록
    -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2.4%) △중남미(+23.7%) △오세아니아(+20.1%)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중동(-38.7%) △EU(-13.1%) △아시아(-31.7%) 등 전쟁 장기화로 인한 영향지역에서는 감소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

구분	'25.09	'25.10	'25.11	'25.12	'26.01	'26.02	'26.03	'26.04
생산 (증감률)	334,289 (8.9)	302,819 (-17.6)	354,204 (2.9)	362,354 (-2.9)	360,504 (24.1)	278,250 (-21.0)	386,363 (4.5)	361,926 (-6.1)
내수 (증감률)	157,898 (20.8)	127,138 (-12.8)	146,241 (-1.1)	144,882 (1.4)	120,816 (14.0)	123,275 (-7.2)	164,810 (10.2)	151,693 (0.7)
수출 (증감률)	228,189 (11.0)	202,928 (-16.6)	236,560 (5.3)	244,772 (-2.8)	249,184 (23.4)	188,450 (-18.5)	259,439 (7.8)	244,990 (-0.8)
수출액 (증감률)	64.1 (16.8)	55.5 (-10.5)	64.1 (13.7)	59.5 (-1.6)	60.7 (21.7)	48.1 (-20.8)	63.7 (2.2)	61.7 (-5.5)
부품수출액 (증감률)	19.2 (6.2)	15.2 (-18.8)	15.7 (-11.1)	18.3 (-2.1)	16.3 (3.9)	14.5 (-22.4)	18.0 (-2.4)	19.0 (-6.0)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6.05.20)' 참고 및 재구성

\* 주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14)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6.05.20)'.

- **(전국)** 2026년 3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은 직전월 대비 크게 반등하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4월 기준 수출은 공급망 이슈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의 경기회복세가 불투명
  - **(생산지수)** 2026년 3월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9%, 전월대비 36.4% 증가한 141.0으로, 2025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같은 기간 자동차 재고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134.4를 기록하였으나, 재고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하는 추세
  - **(품목별 수출액)** '26년 4월 국내 자동차 부문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6%, 전월대비 1.1% 감소한 80.7억 달러로, 2026년 2월의 급감한 수출액은 회복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약보합세는 여전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화물차(45.6%) △전기차(23.0%) △기타 자동차(8.2%) △특장차<sup>15)</sup>(5.3%) △자동차부품(-6.0%) △승용차(-18.4%) 순
    - 대부분의 자동차 품목이 2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부문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은 올해 들어 전년동월비 약세가 지속
  
- **(인천)** 2026년 3월 인천 지역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36.4, 4월 수출액은 8.1억 원을 기록하여, 자동차산업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지속
  - **(생산지수)** '26년 3월 인천의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9%, 전월대비 34.4% 증가한 136.4로, 지난 2월 전년동월비 11.4% 급락했던 지수가 130대로 회복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4월 인천의 자동차 부문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전월대비 3.2% 감소한 8.1억 달러로, 2025년 이후 월별 경기에 다소 등락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완만한 성장세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기타 자동차(30.3%) △승용차(7.0%) △전기차(-3.3%) △자동차부품(-5.2%) △화물자동차(-14.8%) △특장차(-29.8%) 순
    - 인천시 자동차 부문의 세부 부문별 추세는 전국과 달리 전기차 및 기타 자동차의 수출액이 2025년 12월 급락한 이후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5.12	'26.01	'26.02 (p)	'26.03 (p)	'25.03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30.9	127.5	103.4	141.0	134.4	36.4	4.9
인천	자동차 제조업	132.1	131.2	101.5	136.4	117.7	34.4	15.9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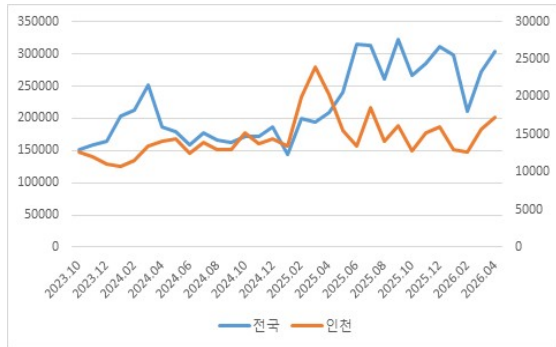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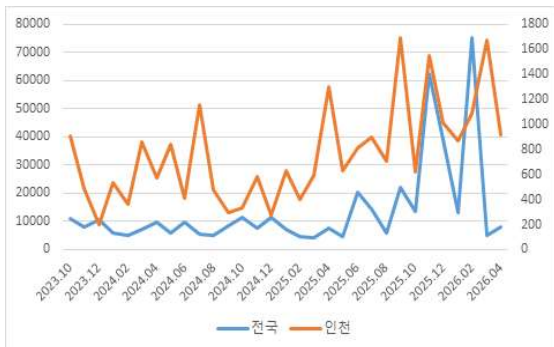
15) 특장차에는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운반차, 냉동탑차 등을 포함.



[승용차(MTI7411)]



[화물자동차(MTI7412)]



[특장차(MTI7413)]



[전기차(MTI7414)]



[기타 자동차(MTI7419)]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6.04)

[ 부록 ]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6.03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64.4	7.9	154.0	5.3	92.6	-8.9	153.8	1.1	145.8	-6.1	344.4	92.9
자동차	141.0	4.9	138.9	5.9	134.4	3.8	136.4	15.9	128.8	10.9	131.3	17.5
기계장비	111.6	4.6	111.8	1.0	129.7	7.0	102.2	-30.3	98.9	-26.7	159.5	9.0
바이오-의약	179.1	-0.8	152.5	3.5	-	-	408.6	-6.6	175.2	3.6	-	-
바이오-화장품	93.3	1.4	98.2	4.0	101.8	-1.9	139.5	6.7	127.1	13.2	99.1	-16.2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39,692	85.9	159,436	20.8	3,500	417.6	820	853.1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류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경제

## 문화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 영화 할인권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5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
  - 금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등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의 할인권이 자동 지급되며, 각 영화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사용 가능
  -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하며, 시스템상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의 경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
  - 영화 예매 결제 시에 활용가능한 동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경로 우대 △청소년 △조조 등 기존 진행되던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 이벤트가 종료

## 경제

## 기후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
  - 금번 추진계획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량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규 플라스틱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 원료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포함
  -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원천감량을 위하여 플라스틱의 재질 전환 및 경량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의 시장진입을 제한
  -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 및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단순 소각하던 의류·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에 대한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여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나프타의 수입 의존도 경감
  - 장례식장·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개인 컵 할인 제도 확대 △가전제품 수리거점 확대 △플라스틱 감량 실천 수칙 홍보 등 민간 부문의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
- 향후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의 접근법을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

#금융위원회

- 지난 5월 14일 금융위원회는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6월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의 취급기관·금리 수준 등을 안내
  - 청년미래적금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이 취급하며, 기본금리 5%(3년 고정금리)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의 수준의 금리로 제공될 예정
  -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 우대금리의 경우 모든 기관 공통으로 ①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 ②'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p가 제공되며, 기관별 우대금리는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으로 구체화된 우대금리 수준은 5월 말경 안내 예정
  -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고려할 경우 금리 7~8% 가정 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자가 체감하는 실질 효과는 기관별 최대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
  - 또한 금융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적금 갈아타기 추가 지원 △2년 이상 가입 8백만 원 이상 납입자에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개선·운영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소재 개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소재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소재 연구개발 이음터(R&D 플랫폼) 구축 전략('26~'30)(안)」을 발표
  - 동 전략은 'AI소재 독자기술 확보로 소재 신시장 개척'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지속가능한 AI 기반 소재 기술혁신 가속화와 국가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추진 전략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소재 AI 모델 독자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자기·전기·화학·열·광학을 개별·동시적 예측하는 '물성 AI 모델' 개발</li> <li>• 공급망 첨단소재 및 미래전략소재 개발을 위한 '재 AI 특화모델' 개발</li> </ul>
AI 소재 전용 자율 실험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 합성~시작품 제조까지 24시간 자동화로 실험·검증하는 센터 구축 지원</li> <li>• 고품질·표준화 실험데이터를 시공간 제약없이 활용</li> </ul>
'국가 소재 연구데이터 통합 이음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운영</li> <li>• 연구데이터의 수집·등록·관리, 표준화, 보안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li> <li>• 산재된 연구·실험 데이터의 AI-Ready 데이터셋 구축</li> </ul>
인공지능·소재 융합인재 체계적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 공동연구, 직무 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한 석사 300명, 박사 75명 이상 배출 목표</li> </ul>

#재정경제부

- 5월 13일부터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과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
  - 금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대가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

구분	주요 내용
대가지급 합리화 및 기업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및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li> <li>공사 계약보증금률을 15%→10%로 변경 및 경제위기 상황 시 장기계속공사의 예약보증금 10%→5% 감경 조항 신설</li> </ul>
국가계약 이행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기준 요구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기업만 인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입찰 단계에서부터의 안전관리 강화)</li> <li>중대재해 입찰 담합 등 중대 위반행위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비율을 10%→20% 상향</li> </ul>
기타 계약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시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20% 이상) 및 감사원 통지 의무화(50% 이상) 조항 신설로 계약제도의 공정성 제고</li> </ul>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부가 오는 6월 8일까지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
  -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400억 원 규모)으로 신규 편성
  - 푸드·뷰티·패션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 400개 사 내외를 선정하여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
    - 금번 사업은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단독 또는 민간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소상공인에게는 △친환경 소재 개발 △상품·레시피 개발 △시제품 제작 등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브랜딩·디자인·패키징·마케팅 등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합 제공
  - 신청과 관련된 상세 공고 및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6월 8일까지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고용노동부

-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
  -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한데다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용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폭염 취약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
  -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 대책 기간(5.15.~9.30.) 동안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
  -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하고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5월 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6월 15일부터는 취약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 및 무관용 처벌 조치를 수행할 예정
  - 또한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예방대책을 준비·추진하고, 폭염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체감온도계·쿨키드 세트 등 재정·물품을 295억 원 규모로 지원 예정
  - △휴식부여·옥외작업 중지(건설업) △휴게시설 설치·개인 보냉장구 지급(물류·택배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용접작업자 보호(조선업) △발주 공사·공공근로 현장 폭염안전 수칙 관리 강화(공공분야) 등 추진

#고용노동부

- 고용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경력지원서비스'로 개편함에 따라 서비스 의무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동자 선택권 및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이 강화될 예정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이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직접제공 외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조정 방식도 가능토록 개선
  -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및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훈련·일경험 프로젝트 및 지역·산업 특화훈련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
  - 중견·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장년 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기업 컨설팅 및 담당자 연수를 지원하는 한편,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 구축을 통해 기존 개별 기업 단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과 중장년내일이음 패키지 등 공공고용서비스의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

## 참고 자료

- OECD, 「OECD Steel Outlook 2025」, 2025.05.27.
- Global Energy Monitor, 「Pedal to the Metal 2025」, 2025.05.
- S&P Global, “Global steel industry battles surplus supply, protectionism”, 2026.01.12.
- 산업연구원, 「철강산업의 현황과 통상리스크」, 월간 KIET 산업경제, 2025.08.29.
- 산업연구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이슈페이퍼, 2022.04.12.
- 산업연구원, 「2026년 경제·산업 전망 - 13대 주력산업편」, 2025.11.24.
- 한국철강협회, 「철강보」 2023년 8월호.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동구 공업지역 산업 및 도시공간 재생 방향」, 2025.10.31.
- 인천광역시 동구청, www.icdonggu.go.kr.
- 산업연구원,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 월간 KIET 산업경제, 2026.02.27.
-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2025.11.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철강산업 구조 재편…과잉설비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경쟁력 키운다”, 2025.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 동구, 철강업 위기 극복 위한 특례보증 이자 4% 지원”, 2026.02.26.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중복 할인 시 4000원에 관람”, 문화체육관광부, 2026.05.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만든다…2030년까지 30%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금융위원회, 2026.05.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재 AI가 설계, '연구로봇'이 실험…신소재 개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4.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하향…기업 경영부담 완화”, 재정경제부, 2026.05.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활문화 혁신' 소상공인에 400억 원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2026.05.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노동부, 폭염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2026.05.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고용노동부, 2026.05.14.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5호(2026.05.22)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6년 05월 22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http://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